

한국 집회·시위문화 변화에 따른 도시 점유 방식의 변화

강서영*, 정육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 머리말

과거 한국에서의 집회·시위는 주로 민주주의 수호 혹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대표되었으며 대학생, 노동자 등 특정 집단 위주로 전개되었다. 시간이 흘러 집회·시위는 범국민적 문화로 자리잡았고, 지금은 목소리를 내고 싶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듯 오늘날 한국의 집회·시위문화는 보다 일상적이고 축제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집회·시위문화가 변화하면서 집회·시위가 도시를 점유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토요일 오후 세종대로를 따라 광화문 광장까지 걷다 보면 대규모 집회에서 장기 농성 천막까지 수많은 시위가 거리를 점거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10개의 시위는 10개의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평일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세종대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일상의 거리로 돌아간다. 이는 과거의 집회·시위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의 집회·시위문화가 도시를 점유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는 집회·시위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를 점유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짚어보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문화가 도시구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비파괴적 시위와 일상으로의 회복성

과거에 비해 집회·시위문화가 평화적이고 비파괴적인 방향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일상과의 공존이 가능해졌다. 하나의 절대적 이념이 전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타도해야 할 공통의 적이 있었던 과거에 도시란 공통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파괴의 대상이었다. 도시가 더 심하게 파괴될수록 전달되는 메시지는 더 강력했다. 시위 집단에게도, 시위를 진압하는 집단에게도 시위 이후 이 공간에서 누군가는 삶을 영위해나가야 한다는 도시의 일상적 기능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현대사회에 들어 이념이 세분되고 다양한 이해집단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동의하는 절대가치는 더이상 나오기 힘들어졌다. 각 집단의 메시지가 사회적으로도 이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도시를 파괴하고, 일상의 공간에 위해를 가하는 형태의 집회·시위는 더 이상 전 시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도시의 제1 주인이 되어 도시를 점거하고 파괴했던 과거의 시위문화는 점차 도시를 잠시 대역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오늘날 집회·시위를 하고자 하는 집단은 가장 먼저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 추정 인원을 경찰청에 신고하고 협조 요청을 보낸다. 이로써 집회·시위 집단과 공권력 간의 협력 관계가 형성된다. 집회·시위는 도시의 일부 공간을 잠시 빌려 사용하고 깨끗이 씻어서 반납하는 일종의 거리축제가 되었다. 일상으로의 회복 용이성을 갖추고 도시와의 공존을 선택한 집회·시위는 장소 선택의 자유를 얻었다. 도시 공간을 파괴의 대상이 아닌 무대배경으로 바라보니 집회·시위가 가능한 장소가 확대되었다.

3. 집회·시위 장소의 확장

집회·시위의 횟수가 빈번해지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벤트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집회·시위 집단은 공동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울려 퍼져 목적하는 바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무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때 집회·시위의 장소는 단순히 군중 집합을 위한 일정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집회·시위의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했다.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그 상징성을 표현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졌고, 이는 고스란히 장소에도 발현되었다. 집회·시위의 무대로 새롭게 발굴된 장소들은 광장과 도로에 국한되지 않았다. 공개공지도, 아파트 단지 입구도, 대형마트의 카운터도, 심지어는 지하철 역사 안까지도 집회·시위를 위한 장소가 되었다. 이는 집회·시위가 보다 일상적인 행위가 되었음을 역으로 증명한다. 집회·시위 집단(=발화자 집단)과, 대상자 집단(=청자 집단)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집회·시위를 위한 장소 선정의 기준을 유형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3.1 집회·시위의 목적(대상자 집단)과 관련된 장소 선정

집회·시위의 목적, 혹은 시위의 메시지가 전달될 청자 집단과 관련된 장소를 집회·시위의 무대로 선정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장소 선정 유형이다. 주장하는 내용을 이해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장소적 상징성 측면에서도 다수의 공감을 얻어내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위의 파급력이 작을 수밖에 없는 1인 시위의 경우 대부분 대상자 집단과 관련된 장소를 선정한다. 집회·시위의 양상은 대상자 집단을 자극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집단 농성, 피켓 시위 등의 형태로 전개되는데, 과격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접거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장소로는 시청과 같은 정부기관, 법원, 기업 본사 등이 있다. 2019년 일본의 대한경제제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인 '아베 규탄 촛불문화제'가 종로구에 위치한 옛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3.2 집회·시위 집단(발화자 집단)과 관련된 장소 선정

반면 집회·시위의 발화자 집단이 갖는 캐릭터가 뚜렷하고, 주장을 관철할 때 그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캐릭터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시위가 이루어진다. 이 유형은 보통 대상자 집단에게 요구를 통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중에게 발화자 집단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한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를 위해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각 캠퍼스에서 촛불 집회를 벌인 것이 일례이다. 앞서 언급한 유형과 달리 대상자 집단에게 직접적으로 발화하는 형식의 시위가 아니므로 성명문 발표, 촛불집회와 같이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가 전개된다.

3.3 연출적 장소 선정

집회·시위 집단에게 있어서 대상자 집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도 집회·시위의 내용이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집회·시위의 내용과 시급성,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장소는 매스 미디어가 조명할 만하거나 집회·시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찰될 수 있을 정도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어야 한다.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가 대표적 예시이다. 넓은 면적을 사용함으로써 시위 집단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퍼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과 중요성이 집회·시위에도 일부 치환되어 효과적으로 집회·시위를 홍보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 계층에 의한 집회·시위일 경우,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음을 구도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 또한 연출적인 의미로서의 장소 선정 사례가 될 수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의 경우, 지하철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면서 약자로서 억압받는 모습을 연출적으로 드러내었다.

4. 맺음말: 광장으로서의 도시

도시는 다양한 이해가치가 충돌하는 복잡계이고,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표출된 사회를 두고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집회·시위는 도시민의 메시지 표출이라는 중요한 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도시 공간은 이를 받아들인다. 집회·시위문화는 기존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탈피하고 일상에 녹아들며 도시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래서 도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집회·시위문화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고정된 채, 용도 변경만을 통해 가변적 도시 구성을 가능케 하는 다용도 도시의 단초가 되어 주었다. 도시와 유연하게 관계 맺는 집회·시위 문화를 통해 도시 전체를 잠재적 광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광장으로서의 도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광장으로서의 도시는 전통적 토지이용계획의 일차원적 기능 제공이라는 한계를 넘어 광장문화가 도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용도 도시의 담론 아래에서 다양한 도시문화가 슬기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1. 박승규(2010) 광장, 카니발과 미학적 정치 공간. 공간과 사회 34: 60-86.
2. 정우열(2014) 집회·시위문화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지 35: 257-284.
3. 정희선(2004) 서울시 집회·시위 발생 공간의 특성과 변화: 1990-2003년. 국토지리학회지 38(4): 447-460.
4. 하상복(2009) 광장과 정치: 광화문광장의 비판적 성찰. 기억과 전망 21: 36-74.